

심혈관질환 I				번호: I - F - 2	
제 목	국문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 한국인 남성에서 식사의 질과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			
	영문	A case-control study on risk factors of CHD: Dietary quality and risk for CHD in Korean men			
저 자 및 소 속	국문	박정화 ¹⁾ , 윤지영 ²⁾ , 오경원 ³⁾ , 심지선 ¹⁾ , 이강희 ⁴⁾ , 남정모 ⁴⁾ , 서 일 ⁴⁾ 1)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2) 한국 애보트 주식회사 3) 하버드 보건대학원 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Jung Hwa Park ¹⁾ , Jee Young Yoon ²⁾ , Kyung Won Oh ³⁾ , Jee Seon Shim ¹⁾ , Kang Hee Lee ⁴⁾ , Chung Mo Nam ⁴⁾ , Il Suh ⁴⁾ 1) Institute for Health Promotion,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2) Abott Korea Ltd. 3)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4) Department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 야	역 학 심혈관질환	발 표 자	박정화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2월				
<p>1. 연구목적</p> <p>지금까지 식이 요인과 질병의 발생이나 예방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별적인 영양소나, 식품, 식품군의 섭취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인들은 단일 영양소나, 단일 식품이 아닌 다양한 영양성분과 비영양성분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식사를 섭취하고 있고, 이들 영양소는 체내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질병예방을 위한 권장지침은 동시에 여러 가지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단일 영양소나 식품, 식이 성분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는 오류를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아직까지 한국인의 식사유형에 적합한 식사의 질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며, 식사의 질과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 남자를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식사지침에 근거하여 식사의 질을 평가하고, 관상동맥질환 위험도와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며, 이미 알려진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관상동맥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p> <p>2. 연구방법</p> <p>환자군은 1995년 10월 30일부터 1996년 7월 31일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연세의료원 심혈관 센터에 입원한 환자중 심근경색증과 협심증 환자중 혈관조형술로 관상동맥질환이 확진된 초발환자중 남자 1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은 동기간동안 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안과와 정형외과에 입원한 환자중 환자군의 연령군에 따른 빈도썩짓기에 의하여 선정된 남자 1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접면접으로 일반적 특성과 일상생활습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식이섭취조사는 직접면접에 의한 반정량적 식품섭취빈도법으로 하였다. 식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dietary quality index(DQI)는 Patterson 등에 의하여 개발된 척도를 한국영양학회(1995)와 한국지질학회</p>					

(1996)에서 권장하는 우리나라 식사 지침에 바탕을 두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DQI 점수는 8개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계산하였으며 총점을 16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식사의 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3. 연구결과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총지방 섭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단백질 섭취는 환자군에서 권장량을 초과하여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p < 0.05$). DQI 총점은 환자군과 대조군 각각 8.5, 9.5로 대조군의 식사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p < 0.001$). 식사의 질과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교차비를 산출한 결과, DQI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비만, 고혈압, 과거력, 현재 흡연상태와 같은 요인들이 식사의 질보다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식사의 질과 질병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영양역학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식사의 질 척도는 서구인의 식사지침을 근거로 하여 개발된 것으로, 이를 우리나라 식사지침을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식사유형에 적합한 평가도구로 인정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 식생활의 사회·문화적 분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대규모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식사의 질을 측정하는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식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측면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